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김상은 | 경북대학교

엄기홍** | 경북대학교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과거 선거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권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성(responsiveness)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선거경합도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경합도의 정치적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도가 의도한 바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자들의 선거경합도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과 재당선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경험적 분석결과를 보면, 과거 선거의 높은 선거경합도는 현재 선거의 득표율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재당선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선거가 치열할수록 현재 선거의 득표율은 증가키지만, 재당선의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본 논문은 반응성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어 |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경합도, 반응성, 재당선, 득표율, 19대 국회의원 선거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정치체계학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논문임을 밝힙니다.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지역 및 국제사회 발전을 위한 정치학 연구방법 인재 양성 사업팀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I. 서론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필수적인 제도는 선거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 등 해방 이후 한국에는 크고 작은 선거들이 수십 년 치러지고 있다. 이러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민의를 대변하지 않은 대표자를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주권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의 기능은 소위 반응성(responsiveness), 즉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러한 의사에 대표자가 반응하여 유권자를 대표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전제인 **반응성에 대한 본격적 분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한국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크게 후보자요인(인물요인), 정당요인, 선거구 요인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최근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으로서 후보자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길승흠 1993; 문용직 1997; 한정택 2007; 박명호·김민선 2008). 예를 들어 후보자요인이란 후보자개인의 자질에 관한 유권자들의 평가로서 발생하며 정당, 정책, 경제상황 등과 관련 없이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요인에 의한 득표를 의미한다(Cain, Ferejohn, Fiorina 1987). 정당요인은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통해 강조되어 온 요인으로서, 이 행태는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이근수·송건섭 2011). 선거구요인은 선거구 각각이 지니는 개별적인 환경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를 의미한다(황아란 1998; 문용직 1997). 선거경합도는 선거구 요인 중 단지 하나의 통제변수로서만 다루어지고 있었을뿐, 본격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 반응성이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발현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선거의 선거경합도가 현직 의원의 득표율과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재당

선되기 위하여, 해당 임기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결국 그 노력은 득표율 증가 그리고 재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한국 국회의원의 5분의 4 이상이 지역선거구를 대표하는 자(者)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반응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시사적,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현직의원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선거경합도와 득표율 및 재당선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선거경합도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주목하여,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3절에서는 상반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및 통계기법을 소개하고, 4절에서는 가설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제시함하고자 한다. 끝으로 5절에서 경험적 발견을 의미하고, 이러한 발견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

국회의원 재선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후보자요인, 정당요인, 그리고 선거구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¹⁾ 후보자요인이란 후보자 개인의 성격, 경력, 능력, 도덕성 등 후보자 개인의 자질이 재당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Cain at al, 1987; Norton and Wood 1993; 윤종빈 2000; 한정택 2007; 박명호·김민선 2008).

1) 이상의 세 가지 요인은 어떤 요인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서 각각이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후보자요인에 속하는 요소들이 정당요인에도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고, 역시 특정한 후보자요인을 가진 선거구가 증가하면 선거구 요인으로서도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거경합도' 라는 변수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경합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 볼 수 있으므로 정당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거구가 지속적으로 선거경쟁이 치열한 편에 속하는 경우 선거경합도를 선거구요인으로서 바라볼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정당이나 이슈 중심의 투표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한국 유권자들이 이와 같은 후보자 요인에 근거하여 투표한다고 지적되고 있다(길승흠 1993; 한정택 2007). 특히 당선경쟁이 치열하고 지역주의 성향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후보자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이갑윤·이현우 2000). 이러한 지적은 정당이 덜 발달한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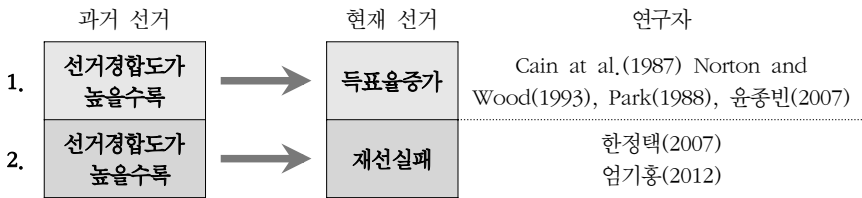
둘째, **정당요인이라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준거로 투표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의 비율에 따라 현직의원의 재당선이 좌우된다. 이와 같은 요인은** 한국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화됨으로써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이근수·송건섭 2011). 한국 선거에 있어서 정당요인에 기반을 둔 투표행태는 지역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을 선호하고 그 결과 지역별로 정당의 지지가 다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갑윤·박경미 2011). 14-16대 국회의원선거를 분석한 이갑윤·이현우(2000)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세 번의 총선결과에서 정당요인에 근거한 투표행태가 후보자요인에 근거한 투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으며,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이동윤(2012)은 이러한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부산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가 나타남으로써 지역주의 차원에서의 정당지지 구조가 점차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선거구요인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단위로서 선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거구 단위의 속성이 현직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황아란 1998). 예를 들어, 선거구가 도시인지 농촌인지의 여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인지의 여부(문용직 1997), 현직 의원이 재출마한 선거구인지의 여부(황아란 1998) 그리고 선거구에서 주로 선호되는 지역정당이 있는지의 여부 등 선거구 자체의 속성에 따라 현직의원의 재당선율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²⁾

2) 이외에도 선거에서의 정책, 특정한 이슈가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엄기홍 2008;

이상의 논의 중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후보자요인이며,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거경합도 역시 후보자요인 중 하나이다. 선거경합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 1> 선거경합도에 관한 기존 연구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경합도의 영향력에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 과거 선거, 특히 바로 전의 선거가 치열한 선거일수록, 현재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득표율이 증가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에 주목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일수록, 즉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일수록 임기 동안 지역구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이러한 의정활동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 증가와 재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인·페레존·피오리나는 『The Personal Vote』에서 1980년대 영국과 미국 의회의원들과 지역구민들 간의 연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였다(Cain et al. 1987). 그들은 의원의 선수와 상관없이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득표율 차이(the previous electoral margin)가 적었던 현직 의원일수록 지역구민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고 이러한 노력이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에 근거한 투표행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미국 선거에서 분할투표(split-voting)가 증대하고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Cho and Eom 2012).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선거경합도와 득표율/재당선에 미치는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논문의 지면이 제한된 관계로 논의하지 않고자 한 것이다.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현직의원이 득표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개인 득표(personal vote)에 주목하고, 이의 결과 지역구활동에 더 매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 두 국가 모두 현직의원의 재당선을 위해 지역구 활동이 가장 중요하며, 이 지역구 활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전 선거에서의 차점자와의 득표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현직의원들의 지역구활동에 대해 연구한 노튼과 우드(Norton and Wood 1993) 역시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득표율 차이가 현직의원의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 외 동료들과 달리 ‘경력 단계(선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다. 즉, 과거 선거에서의 경합도가 낮아 의석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초선의원은 여전이 왕성한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박찬욱과 윤종빈도 위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Park 1988; 윤종빈 2000 그리고 2006). 박찬욱은 1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도 과거 선거에서 2등과의 득표 차이가 작았던 의원일수록 재선이 불확실함을 인지하여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초선의원일수록 지역구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다선 의원의 경우 의석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느껴 지역구 활동에 관한 동기가 크지 않음을 발견하였다(Park 1988). 윤종빈은 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지난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선거경합 정도가 치열했던 현직 의원일수록 지역구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의원의 선수에 따라 지역구 활동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3선 의원이 되는 것은 일종의 ‘경력 전환의 순간’으로서 여겨지고 있으며, 3선이 되는 순간부터 지역구활동의 비중이 낮아지고 당과 의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윤종빈 2000 그리고 2006). 또한 윤종빈은 16대 총선의 현직의원의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직전 선거에서의 차점자와의 득표차가 작을수록(즉, 선거경합도가 높을수록)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 증가가 있음을 밝혔는데, 차순위 후보자와의 득표율 10%의 차이는 다음 선거에서 3.4%의 득표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윤종빈 2002).

그러나 일단의 연구들은 이와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정택(2007)과 엄기홍(2012)의 연구는 과거 선거에서 쉽게 승리했던 국회의원일수록 현재 선거에서 재당선될 확률이 높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정택은 14대부터 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와 득표차이가 커서 쉽게 당선된 현직 의원이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될 확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선수는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한정택 2007). 한편, 엄기홍의 연구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직의원일수록 도전자에 비해 정치자금을 더욱 모금하였고, 이의 결과 현직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당선 가능성은 선거경합도 변수로서 측정되었는데,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정치후원금이 그렇지 않은 도전자에 비해 더 많이 전달되었고 현재 선거에 재출마했을 경우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엄기홍 2012).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과거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이든지, 경쟁이 낮아 쉽게 당선된 국회의원이든지, 선거경합도 자체는 현재 선거에서의 재당선 혹은 득표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선거경합도가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아니면 재당선의 확률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이와 같은 상반된 시각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1. 직전선거에서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은 다음선거에서 득표율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2. 직전선거에서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은 다음선거에서 재당선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III. 데이터와 통계모델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 선거에서의 선거 경합도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 변

화와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 절에서는 기존문헌을 통해 선거경합도의 상이한 효과에 대한 두 가지 대립적인 가설을 수립하였고, 본 절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와 통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범위 및 데이터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단위에서의 선거경쟁을 거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중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출마한 109명 현직 국회의원이 분석대상이 된다³⁾. 이에 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의 ‘국회의원 현황’을 통해 획득하였다.

2. 변수 측정 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출마한 국회의원들의 득표율 증감과 재당선여부이다. 즉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별로 당선된 국회의원 들 중 2012년 선거에 재출마한 국회의원들이 직전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과 차기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의 차이를 말한다. 득표율의 측정은 총 유효투표수 중에 해당 후보자가

3) 선거경합도의 보다 명확한 측정을 위하여 18대와 19대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무소속에서 정당소속 혹은 정당소속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 중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민주통합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정당을 옮긴 경우에는 당적변경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거구획정 변경이 있었던 해당 지역구 의원들 역시 제외하였다.

획득한 득표수의 퍼센트이다. 또한 재당선여부는 재출마한 현직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는지의 여부이며, 성공한 경우 1로 낙선한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2) 독립 변수

본 논문의 독립변수는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이다. 19대 선거에서 재당선된 국회의원들의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될 당시의 선거경합도의 여부에 따라 득표율 증감과 재당선 여부가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으로 선거경합도에 대한 측정은 주의를 요한다.

선거경합도를 추정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55-60퍼센트의 득표율로서 선출되었다면 그 선거구는 경합선거구(marginal seat)이며, 당선된 현직의원은 근소한 차이로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Jacobson 1987). 그러나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 간 구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경쟁이므로 다당적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나 이합집산 등 불안정한 정당체제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선거구의 경쟁 수준을 정할 때 주의를 요해야 한다(황아란 1998). 선거경합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수화했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선거경합도 측정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

연구자	선거경합도 측정 방식
케인·페레존·피오리나(1987), 박찬욱(1988), 노튼과 우드(1993), 지병문·김용철(2003), 윤종빈(2006), 엄기홍(2012)	1위당선자 득표율-2위후보득표율
한정택(2007)	$\frac{\text{차점자의 득표율}(\%)}{\text{당선자의 득표율}(\%)}$
김지윤(2010)	$\frac{1\text{위승자득표율}-2\text{위후보득표율}}{1\text{위승자득표율}+2\text{위후보득표율}}$
황아란(2011)	$1 - \frac{1\text{위당선자}-2\text{위후보자의 득표수}}{1\text{위당선자}+2\text{위후보자의 득표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경합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공통된 방식이 존재하고는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연구들이 1위 당선자와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을 제함으로서 경합도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아란(2011)은 1-2위 간 득표율의 차이가 동일하더라도 후보 득표율에 따라 당선경쟁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상위 두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55%, 45%인 경우와 각각 25%, 15%일 때, 두 경우의 득표율 차이는 10%로 동일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당선경쟁이 더 치열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황아란 2011b). 황아란의 방식은 ‘선거구 내 출마 후보자의 수’에 따라 득표율이 변화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황아란의 연구에 제시된 바와 같이, 1-2위 득표율 차이를 통한 측정방식과 $[1-(1\text{위}-2\text{위}\text{득표수})/(1\text{위}+2\text{위}\text{득표수})]$ 의 측정방식을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둘 간의 상관계수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계의 효과도 보다 엄밀한 측면의 경합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선거구에서 1위로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율과 2위 후보자의 득표율 간의 차이로서 선거경합도를 정의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1) 지역주의

연구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 유의할 점은 **한국 국회의원선거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색채가 짙은 곳일수록 직전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낮고 득표율/재당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지역주의의 이러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을 2로 코딩하고(대구, 경북, 광주, 전남), 비교적 약한 지역주의 지역은 1로(부산, 경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코딩했다⁴⁾. 그리고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독점적

4) 김진하(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역대 선거에서 대전, 충청의 지역투표 경향이 제일 약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투표도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는 가장 최근 19대 총선 결과를 연구한 이동운(2012)의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 지난 16대 총선을 기점으로 급격히 지역주의적 성향이 쇠퇴해 가고 있다고 관측되는데, 그 원인은 충청도는 영호남지역과 달리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응집력’ 이

이지 않는 지역, 즉 지역주의적 색채가 미약한 지역(서울, 경기, 제주)은 0으로 코딩하여 분류했다.

(2) 선수

선거경합도가 득표율/재당선에 영향을 준다면, 국회의원들의 선수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것은 외국의 사례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초선의원들의 부상효과(sophomore surge)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상효과란 초선의원이 재선을 추구할 때, 그들의 득표율 증가가 다선의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초선의원들이 최초로 당선됐을 시 개인 지지 투표(personal vote)를 확보하기 위해 다선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역구활동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윤종빈 2001). 둘째, 국회의원의 인지도 효과에는 한계효과가 있으므로 선수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초선의원이 재선에 출마한 경우가 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이현우·이상현 2010).

(3) 출마 후보자 수

선거경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전체 후보자의 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수가 증가할수록 1-2위 후보자들의 경합도와 종속변수인 득표율/재당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경합도 측정을 황아란(2011a)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전체 후보자수가 선거경합도 측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한다.

(4) 지역구변경 및 당적변경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와 득표율/재당선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선거를 치른 해당 국회의원에게 미칠 수 있는 제3의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전 선거와 다음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달리하거나 무소속으

약한 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박재정 2005; 장수찬 2006).

로 출마해서 재당선했거나 지역구를 바꿔서 재당선된 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국회의원이 같은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출마했는지라도 해당 지역구가 인접한 다른 지역구와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⁵⁾. 본 논문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변경 및 통합이 진행되었던 13곳의 지역구, 18대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19대 때 정당소속으로 재출마한 지역구(3명), 18대에는 정당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19대 때 무소속으로 재출마한 지역구(14명), 그리고 지역구를 바꾸어 출마한 경우(2명)를 제외했다⁶⁾.

이상의 논의는 공식 1)과 공식 2)로 정리될 수 있다.

$$\text{득표율증감}_i = \alpha + \beta_1 \text{선거경합도}_i + \beta_2 \text{지역주의}_i + \beta_3 \text{선거경합도} * \text{지역주의} + \beta_4 \text{선수}_i + \epsilon_i$$

공식 1)

$$\text{재당선}_i = \alpha + \beta_1 \text{선거경합도}_i + \beta_2 \text{지역주의}_i + \beta_3 \text{선거경합도} * \text{지역주의} + \beta_4 \text{선수}_i + \epsilon_i$$

공식 2)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공식 1)과 공식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득표율 증감과 재당선 여부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선거경합도이다. β 는 각 변수에 대한 기울기 계수이다. i 는 분석수준인 국회의원을 의미하며, ϵ 는 교란요인 (disturbance term)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전통적 회귀분석모델(Classical Linear Regression model)이며, 계수에 대한 측정방식은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이다.

5)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설된 지역구인 ‘세종시’의 경우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데이터가 없으므로 제외했다.

6) 지역구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통제변수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창원시갑→창원시 의창구, 창원시을→창원시 성산구, 마산시 갑→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시 을→창원시 마산회원구, 진해시→창원시 진해구.

IV. 경험적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1) 선거경합도

본 논문의 목적은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선거경합도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선거경합도 변수는 0-1값으로서 0의 값에 가까울수록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며, 1의 값에 가까울수록 선거경쟁이 치열한 것을 의미한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경합도는 전국적으로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선거경합도는 0.7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21이었다.

〈표 2〉 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경합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선거경합도	0.76	0.21	0.13	0.99

선거경합도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면, <표 3>와 같다. 전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55% 이상이 0.7이 넘는 비교적 높은 선거경합도, 즉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절반 이상의 지역 구에서 1위 당선자와 2위 후보자와의 선거 경쟁이 비교적 치열한 편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선거 경쟁이 비교적 치열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정도인 0.4미만의 경우 전체의 10%가량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2위 후보자를 수월하게 제치고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사실상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경합도 분포

선거경합도	빈도	비율	누적
0.9미만-0.8이상	40	36.70%	36.70%
0.8미만-0.7이상	20	18.35%	55.05%
0.7미만-0.6이상	20	18.35%	73.40%
0.6미만-0.5이상	10	9.17%	82.57%
0.5미만-0.4이상	5	4.59%	87.17%
0.4미만-0.3이상	4	3.67%	90.84%
0.3미만-0.2이상	4	3.67%	94.51%
0.2미만-0.1이상	4	3.67%	98.18%
0.1이하	2	1.82%	100.00%
소계	109	100%	

(2) 선수

선수에 따른 선거경합도 분포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초선 국회의원들의 선거경합도는 평균 0.83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왔고, 다선 국회의원(2선 이상)들의 선거경합도는 평균 0.73으로서 초선의원들의 것보다 약 0.1가량 낮은 수치였다. 이는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의원일수록 치열한 선거경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음을 보여주며, 이들이 초선의원을 벗어나면 상대적으로 선거경쟁에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참고로 5선과 6선의 경우 다선의원의 선거경합도 평균계산에서 제외하였는데, 5선은 해당의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6선은 단 1명으로서 극단적 값으로서 여겨질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표 4〉 18대 국회의원의 선수별 선거경합도 분포

	선수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선거경합도 평균	0.83	0.75	0.67	0.78	-	0.87
표준편차	0.13	0.24	0.25	0.17	-	0.86
N	32	51	20	5	0	1

(3) 지역주의

지역에 따라서 선거경합도가 어느 정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표 5〉는 선거구가 지역주의 지역에 있을 경우,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인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선거경쟁의 정도가 0.52로 나타났다. 지역주의가 비교적 약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 부산·경남, 전북, 대전·충남·충북에서는 평균이 0.71로서 강한 지역주의 지역보다 선거경쟁의 정도가 0.19가량 높았다. 끝으로 지역주의가 미약한 지역인 서울·경기, 제주의 경우에는 선거경합도가 0.87로 나타났다. 즉, 지역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일수록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며, 반대로 서울·경기와 같이 지역주의적 색채가 미약한 지역은 팽팽한 경쟁을 통해 선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지역주의와 선거경합도

지역주의	선거경합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주의 강한 지역	0.52	0.30	0.13	0.96
지역주의 약한 지역	0.71	0.19	0.30	1.00
지역주의 없는 지역	0.87	0.10	0.61	1.00

2. 득표율 증감에 대한 분석

선거경합도는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만약 선거경합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가설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경합이 치열했던 선거구일 수록 득표율이 증가하고 있을까? 선거경합도와 득표율 간의 분석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모델 1은 선거경합도와 득표율 증감만을 분석한 결과이고, 모델 2는 선수와 지역주의 지역이 통제된 상태의 분석이다. 모델 3은 모델 2에 선거경합도와 지역주의 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을 확인하기 위한 모델이다.

<표 6>의 모델 1의 결과를 보면, 선거경합도 변수의 기울기 계수는 0.31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처럼 직전 선거에서 선거경합도가 높았던 국회의원은 현재 선거에서 득표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효과는 국회의원의 선수 혹은 지역주의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득표율증감 회귀분석에서 지역주의 변수와 선수를 삽입하여 선거경합도와 득표율증감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하는지 분석했다.

<표 6> 모델 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새로이 삽입된 두 개의 통제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통계적 관계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의 선거경합도가 통제된 상태에서 지역주의라는 변수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며, 국회의원이 당선된 횟수인 선수 역시 득표율 증감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선거경합도가 지역주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득표율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는 모델 3에 제시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호작용에 대한 검증은 교호변수만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호변수와 이의 원변수, 즉 선거경합도와 선거경합도*지역주의 변수를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Brambor, Clark and Golder 2006). 모델 3의 선거경합도와 선거경합도*지역주의 변수를 결합 F검정(joint F test)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일수록 선거경합도가 득표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주의가 없는 지역이거나 약한 지역의 경우 이전 선거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의 득표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강한 지

역주의 지역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득표율 증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선거경합도	0.31*** (0.05)	0.34*** (0.06)	0.30*** (0.11)
선수		-0.01 (0.01)	-0.01 (0.01)
지역주의		0.19 (0.02)	-0.01 (0.06)
선거경합도*지역주의			0.04*** (0.07)
절편	-0.27 (0.04)***	-0.29 (0.06)**	-0.25 (0.10)
N	109	109	109
R ²	0.28	0.29	0.29

*: p<0.10, **: p<0.05, ***: p<0.01

3. 재당선 여부에 대한 분석

본 논문의 첫 번째 가설인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는 현재 선거의 득표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선거경합도의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재당선으로도 이어지는가, 아니면 한정택(2007)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재당선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가? 이에 대한 분석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재당선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선거경합도	-5.21*** (1.70)	-4.70*** (1.85)	-4.94* (2.73)
선수		-0.36 (0.24)	-0.36 (0.24)
지역주의		0.33 (0.39)	0.09 (2.03)
선거경합도*지역주의			0.30 (2.38)
절편	5.11	4.59	4.81
N	109	109	109
LR CHI2	14.54	15.38	15.40

*: $p < 0.10$, **: $p < 0.05$, ***: $p < 0.01$

〈표 7〉은 직전 선거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현재 선거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6〉과 같이, 〈표 7〉은 선거경합도와 재당선 간의 관계(모델 1), 선수와 지역주의를 통제한 모델(모델 2), 선거경합도와 지역주의 간의 교호작용을 분석한 모델(모델 3)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모델에 있어서 선거경합도는 현직의원의 재당선에는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표 6〉과는 달리 당선 확률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치열한 선거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일수록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당선에 실패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증가시키지만, 재당선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자칫 모순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대립가설(가설 1과 가설 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4. 득표율은 증가 그러나 재당선은 실패?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정리하면,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높을수록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은 증가하지만, 재당선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선거경합도가 치열했던 경우와 치열하지 않았던 경우의 두 부류로 나누어, 각각의 득표율 증감 정도와 재당선 정도를 계산하였다. 구분의 기준은 선거경합도 0.9인데, 이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국의 선거경합도 평균이 0.76(표준편차 ± 0.21)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0.9이상을 선거 경쟁이 치열한 정도의 수치로 하였다.⁷⁾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경우, 19대 선거에서 1.76% 가량의 득표율이 증가했다. 한편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경우 6% 가량의 득표율이 감소되었다. 이것은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8> 선거경합도의 강도에 따른 득표율 증감 추이

	직전 선거 득표율평균(18대)	현재 선거 득표율증감(19대)
선거경쟁이 치열했던 경우 (선거경합도 0.9이상)	49% (37-61%)	+1.76% (39-63%)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 (선거경합도 0.9미만)	52.50% (42-52%)	-6% (36-56%)

(괄호 안은 신뢰구간 범위)

나아가 선거경쟁이 치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의 재당선 여부의 확률을 계산해 보았다.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전 선거에서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경우, 재당선에 성공

7)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경합도가 0.9이상이었던 국회의원의 수는 총 40명이며, 0.9 이하의 국회의원 수는 69명이다.

할 확률이 평균 81.16%이었다. 이는 경쟁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렀던 국회의원일수록 다음 선거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재선에 성공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쟁이 치열했던 경우, 현재 선거에서 재당선에 성공할 확률은 52.50%에 불과했다.

〈표 9〉 선거경합도의 강도에 따른 재당선여부

	재당선 성공	재당선 실패
선거경쟁이 치열했던 경우 (선거경합도 0.9이상)	52.50% (21)	47.50% (19)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 (선거경합도 0.9미만)	81.16% (56)	18.84% (13)

(괄호 안은 사례 수)

이와 같은 발견을 요약하면, 선거경쟁이 치열했던 경우와 아닌 경우로 양분했을 때,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높았을수록, 현재 선거에서 득표율도 증가하고(+1.76%), 재당선에 성공할 확률은 비교적 낮은 것(52.5%)을 알 수 있다. 달리 이야기 하면, 선거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쉽게 당선된 국회의원일수록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은 감소하지만, 당선에 실패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선거경쟁이 치열해서 가까스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 다음 선거에서 득표율 증가는 이루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선거구는 아니라는 점이다.

V.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와 현재 선거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선거경합도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재당선여부와 득표율 증가라는 두 변수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

사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높았을수록, 현재 선거의 득표율이 증가함을 밝혀냈다. 또한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높았을수록, 현재 선거의 재당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점도 아울러 밝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를 통해 대립된다고 여겼던 두 범주의 이론들이 사실상 모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발견은 직전 선거에서의 선거경합도가 현재 선거에서의 득표율 증가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것이 재당선에 성공할 만큼 강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득표율과 재당선이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발견은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기능하고 있지만, 제한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이자 의정활동에 대한 동기로서 간주할 수 있는 선거경합도가 득표율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거경합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은 이러한 민의가 제한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위 지역주의 지역은 선거경합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유권자의 주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경합도가 국회의원들의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커다란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이 보다 큰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선거경합도와 선거결과라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짓는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수준 높은 경쟁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 활동 및 의정 활동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게끔 만드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구민들의 공정한 한 표가 선거과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의 연구는 선거경합도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본 논문은 그 연구를 위한 시발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7. “설문조사를 통해 본 17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세계지역논총』 25집 3호, 53-75.
- 강주현. 2007. “선거 경합도와 정당 파위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미국 보유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집 3호, 99-120.
- 길승흠. 1993.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 변화: 1963-1993.”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133-152.
- 김도중·김형준. 2000.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105-127.
- 김지윤. 2010.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44집 4호, 119-136.
- 김진하. 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3권 2호, 89-114.
- 문용직. 1997.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13권 3호, 161-190.
- 박명호·김민선. 2008. “한국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자의 재선 추이에 관한 분석: 16대~18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연구』 15권 1호 161-176.
- 박재정. 2005.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충청권 정치지형의 변화 가능성.” 『아태정치연구』 1권 1호, 97-114.
- 박찬욱·김형준. 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2권 2호, 1-26.
- 엄기홍. 2012. “정치자금 불평등의 수준과 원인: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2집 1호, 229-252.
- 엄기홍. 2008.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 평가지수 개발.”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2호, 217-238.
- 윤종빈. 2000.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원인분석: 커리어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4호, 146-163.
- 윤종빈. 2001. “영국 현직의원의 득표율 변화 분석, 1987-1992.” 『한국정치학회보』 41집 1호, 188-203.
- 윤종빈. 2002.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 분석 - 지역구활동 효과를

-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129-146.
- 윤종빈. 2004. “16대 국회의원의 역할유형과 지역구 활동.” 『한국정치학회보』 38집 5호, 177-196.
- 윤종빈. 2006.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146-164.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150-169.
- 이갑윤·박경미. 2011. “지역발전과 지역적 정당투표.” 『사회과학연구』 19권 2호, 138-170.
- 이동윤.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지역 정당지지도 분석.” 『오토피아』 27권 1호, 223-255.
- 이근수·송건섭. 2011. “지방선거의 유권자 투표 선택, 정당인가 후보인가?: 6.2지방선거와 서울시의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권 4호, 339-360.
- 이현우·이상현. “미국 하원의원의 득표율 증가요인 분석.” 『21세기 정치학회보』 20집 2호, 126-145.
- 장수찬. 2006. “충청 지역주의의 변화와 지역정당해체.” 『한국정당학회보』 5권 1호 147-169.
- 지병문·김용철. 2003.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당효과 및 선거 경쟁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8권 26호, 265-286.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 제 14대부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집 3호, 73-99.
- 황아란. 1998.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요인 -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경쟁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집 3호, 163-186.
- 황아란. 2011a. “기초단체 지방선거 투표율의 결정요인 분석: 2010년 지방선거의 변화와 특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집 1호, 5-24.
- 황아란. 2011b.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경쟁이 동시선거 투표율에 미친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45집 4호, 283-299.
- Brambor, Thomas, William Roberts Clark and Matt Golder. 2006. “Understanding Interaction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14: 63-82.
- Cain, Bruce E., Hohn A. Ferejohn and Morris P.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onstituency Service and Electoral Independ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ho, Jinman and Kihong Eom. 2012. "Generation Effects, To Be or Not To Be: Empirical Analyse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ial Elections." *Asian Perspective* 36: 353-386.

Park Chan wook. 1985. "Constituency Representation in Source and Consequenc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13(2):225-242.

Jacobson Gary C. 1987. "The Marginal Never Vanished: Incumbency and Competition in Elections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52-82."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1): 126-141.

Norton Philip and David M. Wood. 1993. *Back From Westminster: British Members of Parliament and Their Constituents*.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투고일: 2013.09.09 심사일: 2013.10.04 게재확정일: 2013.10.09

【ABSTRACT】

The Effects of Electoral Competition on
Vote Share and Reelection
- Empirical Analyses of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f Korea

Kim, Sang Eun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om, Ki Hong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effect of electoral competition on vote share and reelection, thereby testing the responsiveness of representativ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electoral competition of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the vote share and reelection of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findings shows that high electoral competition in a previous election lead to the increase of vote share, but the decrease of reelection. We conclude that the inten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orks in Korea, but the level of that is somewhat limited.

Key Words |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oral competition, responsiveness, vote share,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